

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1.25)

1. 한국의 지소미아(GSOMIA) 종료 결정 관련

□ [미국 정부 및 의회 반응]

- 미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‘미국은 지소미아를 갱신(renew)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’ 며 ‘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’ 라고 밝힘.¹⁾
- o ‘한국과 일본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길 권고한다’ 며 ‘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, 안보, 사안은 분리돼야 함을 강력히 믿는다’ 고 강조
-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의원은 ‘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동맹 간 협력에 득이 될 현명하고 판단력 있는 결정을 내렸다’ 고 밝힘.

□ [미국 전문가 반응]

-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‘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은 현명했다 그러나 한미간 신뢰는 이미 손상을 입었다.’ 라며 우려²⁾
- o ‘한국은 소중한 합의를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을 한일 간 경제적, 역사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했고 이는 동맹 남용 행위’ 라는 입장
- o ‘정보협력을 종료하겠다고 위협한 행위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에 대한 3국간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이익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이 잠재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’ 고 주장

1) 「국무부 "지소미아 갱신 환영"...의회도 긍정 평가」 『연합뉴스TV』 (2019. 11. 23).

2) 「The 66-year alliance between the U.S. and South Korea is in deep trouble」 『The Washington Post』 (2019. 11. 23).